



2013 하계U대회 광주에서

U대회 유치 시민 힘으로

오늘 범시민지원단 발대식...봄 조성 나서

한마음대회·대학생 지원단 등 잇단 행사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시민의 힘으로”

2013 하계 U대회 광주 유치 범시민지원단이 11일 발대식을 갖고 유치 붐 조성에 본격 돌입하는데 이어 13일에는 ‘시민한마음대회’와 ‘대학생 지원단 발대식’이 개최되는 등 시민 열기를 모으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 5개 구도 오는 25일까지 각각 별도의 유치 기원대회를 갖는다.

광주시에 따르면 하계U대회 광주 유치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이 11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이희범 유치위원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각 구청장, 시의원, 범시민지원단 대표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다.

광주시립극단의 식전공연 ‘축제를 시작으로 홍보 영상물 상영,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이날 행사에서 범시민지원단

은 “2013 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유치 열기 확산과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29일 실시된 범시민지원단 모집에는 10만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U대회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범시민지원단은 이날부터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5월 말까지 광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초질서지킴이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4월 말로 예정된 현지 평가단 방문때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과 열정을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유치 열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3일 오후 4시에는 광주시청에서 대학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지원단 발대식’이 개최된다. 시는 하계U대회의 주역인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유치 붐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조

직 체계를 꾸려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앞 특설 무대에서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유치기원 시민한마음 대회’가 열린다.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슈퍼카드, 데프콘, 제이, 한해진, 이승환 등 가수들의 공연과 U대회 홍보 VCR 상영, 축하 불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 4일 서구를 시작으로 각 구별 유치 기원 대회도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북구는 오는 13일(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광산구는 14일(오후 2시 광산문화회관), 동구는 18일(오후 2시 구청대회의실), 남구는 25일(오후 2시 남구문화회관)에서 각각 대회를 갖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U대회 유치의 관건인 만큼 봄 조성에 모두가 힘을 모아 야 한다”며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17만여 범시민지원단과 3천여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헌신적 활동이 재연되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노인 전진대회

광주시는 10일 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서 ‘2008 일하는 노인 전진대회’를 갖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올해 노인 4천100여명에게 기초질서 관리와 환경정비 등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중·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광주시 첫 심의

환경과 자연훼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 관련 심사에서 제외됐던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광주시는 오는 13일 광주 동구청이 추진하는 동구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연다.

이는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대폭 확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다.

용산지구 개발사업은 19만2천㎡의 부지에 2천13가구가 들어서는 택지개발 사업이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택지 개발의 경우 30만㎡ 이상일 경우에만 영향평가를 받았지만 15만㎡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도로 건설은 2km 이상, 산업단지 개발은 7만5천㎡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착공

14일 기공식...192억원 투입 내년 7월 완공

광주 영상문화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 될 영상복합문화관 기공식이 오는 14일 동구 서석동 옛 광주세무서 부지에서 열린다.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6천여㎡ 규모의 이 문화관은 지난해 설계용역과 시공자 선정 등을 마쳤으며 192억원이 투입돼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문화관은 ‘영상복합문화관’과

‘문화콘텐츠테마타운’ 등 2개 테마로 설이 될 영상복합문화관 기공식이 오는 14일 동구 서석동 옛 광주세무서 부지에서 열린다.

영상복합문화관에는 영상 예술센터, 영상 관련업체, 대학 창업지원센터, 전시·홍보관(영상박물관), 문화 산업아카데미 등이 자리잡는다. 또 문화콘텐츠 테마타운에는 콘텐츠 시연평가 및 체험관(전시체험관), 게임센터, HD상영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

다. 이 문화관은 문화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문화상품의 전시·홍보·마케팅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시, 연구, 창작, 체험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곳에 집적시켜 ‘문화수도 광주’를 대표하는 영상문화산업의 중추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모든 관공서·공영주차장 토·일요일 무료 개방

광주시에 도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토·일요일에 관공서·공영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시내 74개 관공서와 공영주차장을 주말과 휴일에 무료 개방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2개 노선 10개 구간(29km)을 ‘불법주정차 없는 시범거리’로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북구 38곳을 비롯해 서구 13곳, 광산구 13곳, 남구 8곳, 동구 2곳 등의 관공서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이 토·일요일에 시민 주차공간으로 제공된다.

무료 개방되는 주요 주차장은 ▲동구청, 광주전남 지방병무청(동구) ▲양동 공영주차장, 농성1동 공영주차장(서구) ▲남구청 차량등록민원실,

양림동 공영주차장(남구) ▲북구청 앞 응봉천 복개지, 동운고가 주차장(북구) ▲송정 5일시장, 쌍암공원 주차장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에 단연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한 ‘불법 주정차 없는 시범거리’ 10개 노선에 대한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제문화창의산업전 9월 DJ센터서

아시아 최대의 문화콘텐츠 소인 ‘제3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이 9월4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

센터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콘텐츠는 진화한다(Content evolve)’라는 주제로 문화콘텐츠 전시와 학술행사, 수출상담,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방송·영상관, CGI·애니메이션관, HD멀티미디어관, 캐릭터관 등 360개 부스가 설치돼 최신 기술과 작품을 선보이고 관련 분야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중동 등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전략 세미나 등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정후식기자 who@

광주대학교 대학원 PSA 과학전문학원

www.psa.ac.kr

02-671-573-1000 / 010-9408-0079

농성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 서경빌딩 임대

368-8889

임대 약 150평 (1000/700)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영어교사 23000명 내년부터 채용!

TESOL

TESOL 자격증과 학위증서 同時취득!

www.tesolthailand.com

www.tesol.or.kr

info.daum.net/tesol

02-237-6268

062-222-6253